

투어 번호
LK4KGHMTB9

스리랑카의 보석 (16일)

15일 · 1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6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네고롬보의 서해안 해변에서 출발하여 남부 야생 동물 보호구역을 거쳐 엘라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고, 캔디의 문화 중심지와 담불라, 시기리야의 고대 도시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동쪽 트린코말리로 향해 여러 날간의 해변 체류 후 콜롬보로 돌아옵니다. 스리랑카의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지와 국립공원, 차 재배지, 해변 시간을 조합한 긴 코스이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객들은 야랄라에서 표범, 코끼리, 나무늘보곰을 찾는 사파리 드라이브, 엘라 근처의 나인 아치스 브릿지 트레킹, 풍경이 아름다운 엘라에서 나누오야로 가는 기차 여행, 호튼 평야와 월드스 엔드,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농장 방문, 캔디의 신성한 이빨 사원과 왕립 식물원, 담불라의 석굴 사원, 시기리야 암석 요새, 그리고 피전 아일랜드를 포함한 트린코말리 해변 주변에서의 여러 날과 고래 관찰을 경험합니다. 투어의 속도는 느긋하며, 각 지역에 정착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여러 고정 숙박지가 있어 명소들 사이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투어는 영어를 구사하는 기사 가이드가 운전하는 프라이빗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박비, 세금 및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비자 비용 및 개인 경비는 별도로 준비되며, 여행객의 최소 나이는 11세입니다. 완전한 프라이빗 일정으로 공동 그룹이 없으며 일정을 당신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서해안의 네곰보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길게 뻗은 모래 해변과 오랜 어업 전통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 해변을 즐기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어업 활동을 직접 지켜보세요. 해양 스포츠와 다이빙도 가능하며,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라앉은 50년 된 난파선을 찾아가는 투어도 있습니다. 이 난파선에는 현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얄라

아침 식사 후 남쪽의 얄라로 이동하여 체크인하고, 사파리에 앞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Day 3 얄라

남부에서의 야생동물 사파리와 엘라 주변 명소를 둘러보는 반나절 투어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에서 3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기며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늘보곰, 그리고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엘라

밝은 초록빛 차밭과 바위투성이 지형을 지나며 엘라를 둘러보고, 리틀 아담스 피크의 경치를 감상합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를 건너며 건설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고리 모양으로 선로가 겹치는 독특한 구조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도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4 엘라 → 누와라엘리야

영국 식민지 시대의 고산 휴양지였던 누와라엘리야로 이동하며, 도중에 경치 좋은 기차 여행도 즐깁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19세기와 20세기 초 대영제국 최고의 고산 휴양지였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리를 걸으며 아기자기한 코티지와 빈티지한 빌라, 오래된 저택들을 둘러보세요.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을 방문하고,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 기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엘라-나누오야 기차 여행

엘라에서 나누오야까지 이어지는 기차 여행은 스리랑카 고산 지대 최고의 풍경을 지나갑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차밭, 안개 낀 산간 마을, 깊은 숲, 그리고 폭포가 펼쳐집니다.

Day 5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다녀오는 당일 여행 후 누와라엘리야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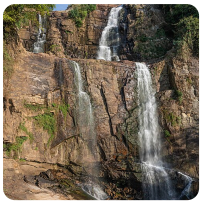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의 고산 초원과 구름 숲을 탐험합니다. 월드 엔드에서 펼쳐지는 장관과 베이커스 폭포의 물줄기를 감상하고,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을 관찰하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에 대해 배워봅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6 누와라엘리야 → 캔디

캔디로 이동하며 폭포와 차 농장, 식물원을 거쳐 불치사(佛齒寺)와 코끼리 복지 프로젝트를 방문합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인 람보다 폭포를 방문합니다.

A.Savin · FAL

맥우즈 차 농장

맥우즈 차 농장에서 가이드 투어를 통해 차의 종류, 가공 방법, 품질 등급에 대해 배워봅니다. 차는 1824년 중국에서 실론으로 처음 들여와져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에 심어졌으며, 1852년 도착한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인근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상업적인 차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학갈라 식물원

그늘진 가로수길과 화려한 식물들이 가득한 학갈라 식물원을 걸어봅니다.

Own work of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그레고리 호수

그레고리 호수 기슭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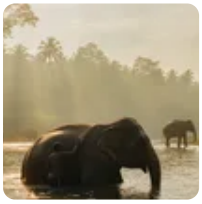
Rehman Abubakr · CC BY-SA 4.0



불치사(佛齒寺)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홀을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금박을 입힌 불상들을 감상합니다.

A.Savin · FAL



밀레니엄 엘리펀트 파운데이션

밀레니엄 엘리펀트 파운데이션은 스리랑카 전역의 사육 코끼리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가족 운영 NGO로, 수의 진료, 사료, 조련사 급여를 지원하고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곳의 엘리펀트 워크 체험은 코끼리를 타지 않고도 코끼리와 가깝고 윤리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7 캔디

식물원 관람과 저녁의 전통 무용 공연이 함께하는 캔디에서의 하루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왕립식물원은 넓은 조경 부지에 난초, 향신료, 약용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논볼 나무, 현수교, 희귀한 대형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길도 볼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캔디 전통 문화 공연

불춤, 칼춤, 캔디안 댄스 등 북소리에 맞춘 다양한 스리랑카 전통 공연 예술을 1시간 동안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8 캔디 → 마탈레 → 담불라 → 시기리야

마탈레와 담불라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며, 향신료 농장을 방문하고 담불라 석굴사원을 둘러본 후 시기리야에 도착합니다.



향신료 농장

향신료 농장에서 전통 요리 시범을 체험하며 로티 만들기나 커리 파우더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담불라 황금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담불라의 고대 석굴사원에 들어가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있는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을 감상합니다. 이 석굴들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 위대한 왕의 동굴, 그레이트 뉴 모나스터리가 포함됩니다. 석굴 사원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9 시기리야

오전에는 시기리야 암벽 요새를 오르고, 오후에는 인근 마을 생활을 체험합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카샤파 왕이 건설한 5세기의 암벽 요새를 올라봅니다. '사자의 바위'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자의 발 사이로 들어가며,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를 감상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계단식 정원과 지금도 사용되는 물 저장소를 둘러본 뒤, 과거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갑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하산 후에는 인근 마을을 방문해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고, 논길을 걸으며 나뭇불로 조리해 연잎에 올려 낸 가정식 점심을 맛봅니다.

Day 10 시기리야 → 트링코말리

동쪽의 트링코말리로 이동하며, 고대 사원과 마을의 요새 및 해변, 그리고 인근의 고대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고, 고래 관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고대 사원을 방문합니다. 벽화를 통해 사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작은 석굴 성소는 기원전 15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본당은 기원전 약 400년경부터 발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예배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라바나 왕을 기리는 거대한 석상도 있습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트링코말리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건설한 요새를 방문합니다.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파괴된 원래의 코네스와람 사원에서 가져온 석재와, 이후 철거되어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재건된 프레더릭 요새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Kondephy · CC BY-SA 4.0



닐라빌리 해변

황금빛 모래와 흔들리는 야자수, 맑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닐라빌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 해변이 코네스와람 사원에 토지를 기증한 내용을 기록한 10세기 타밀어 비문도 볼 수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티리야야

고대에 타밀 불교가 행해졌던 마을, 티리야야를 둘러봅니다. 부처님이 두 명의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전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리에 세워진 기리하두 세야 불탑을 방문하고, 마지막 반니야르 족장 중 한 명이 살았던 오래된 요새도 둘러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고래 관찰

스리랑카 근해에서 대왕고래, 향유고래, 참고래 등을 찾아보는 책임감 있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고래 관찰 투어로, 자격을 갖춘 자연 해설가가 함께하여 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11 트링코말리

해안의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하루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호초로 둘러싸인 작은 섬과 큰 섬으로 이루어진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을 탐험합니다. 이곳에서 번식하는 바위비둘기와 다양한 산호 종류,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2 트링코말리 (12~14일차)

트링코말리 해변에서 사흘 동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트링코말리 해변

흔들리는 야자수와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트링코말리의 황금빛 모래 해변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Kondephy · CC BY-SA 4.0

Day 15 트링코말리 → 콜롬보

콜롬보로 이동하여 수도의 명소와 쇼핑 지역을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합니다.



콜롬보 시내 투어

올드 라이트하우스, 구 국회의사당, 갤 페이스 호텔, 갤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인 명소를 둘러보고, 독립 광장과 경마장, 도시의 부티크 상점과 디자이너 매장도 구경합니다.

Gihanud2001 · CC0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